일러두기 ·· 4

해제 ·· 13
왕조 교체기에 처한 사대부의 통한을 담은 유배시 | 김동욱

남쪽으로 유배되어 南行錄

홍무 기사년 12월 8일 순천부에 유배되어 가다가 청교 길가에서 형제들과 헤어지며 洪武己巳十二月初八日流順天府青郊途中別弟兄 ·· 59

임진강 가는 길에 臨津途中 ·· 60

9일에 길을 가다가 함께 유배된 여러 선생을 삼가 그리워하며
初九日途中奉懷同時見黜諸先生 ·· 61

길 가다가 감회가 있어 途中有感 ·· 62

판교원을 지나다가 삼가 조 선생 운흘 을 생각하며
過板橋院奉憶趙先生 云仡 ·· 63

낙생역에서 잠시 쉬며 小憩樂生驛 ·· 64

청회역 다락에서 우연히 역 서쪽의 고목을 읊다
淸淮驛樓上偶吟驛西老樹 ·· 65

감회가 있어 有感 ·· 66

가천에 이르러 짓다 到加川作 ·· 67
길 가다가 감회가 있어 途中有感 ·· 68
금지역에서 짓다 金池驛作 ·· 69
길 가다가 途中 ·· 70
절구 絶句 ·· 71
17일 새벽에 읊다 十七日曉吟 ·· 72
길 가다가 감회가 있어 途中有感 ·· 73
정복재를 그리워하며 有懷鄭復齋 ·· 74
19일 새벽에 일어나 꿈을 적다 十九日曉起紀夢 ·· 75
길 가다가 감회가 있어 途中有感 ·· 76
20일 이른 아침에 읊다 二十日早吟 ·· 77
익주를 떠나며 發益州 ·· 78
21일에 운 스님과 헤어지며 二十一日別雲師 ·· 79
24일에 二十四日 ·· 80
찾아온 규 스님을 만나서 珪師來見 ·· 81
저물녘 남원산성에 들어가며 晩入南原山城 ·· 82
섣달그믐 밤에 除夜 ·· 84
7일에 선원사에 묵다. 고 선달과 양 진사가 뒤늦게 위로하다
初七日宿禪院寺高先達梁進士追慰 ·· 85
13일에 지은 절구 十三日絶句 ·· 86
15일에 6언 十五日 六言 ·· 87
감회가 있어 有感 ·· 88
17일 새벽에 일어나 지난밤 읊조린 시 한 수를 쓰다
十七日去夜吟得一首曉起錄之 ·· 89

즉사 卽事 ·· 90

절구 2수 絶句 二首 ·· 91

우연히 짓다 偶題 ·· 93

즉사 卽事 ·· 95

22일에 二十二日 ·· 96

즉사 卽事 ·· 97

밤에 읊다 夜吟 ·· 98

23일 아침에 읊다 二十三日朝吟 ·· 99

즉사 卽事 ·· 100

순천에서 읊다 順天吟 ·· 101

밤에 앉아서 夜坐 ·· 103

25일에 二十五日 ·· 104

책을 보다가 느낀 바가 있어 有感書懷 ·· 105

절구 絶句 ·· 107

홍무 19년 정묘년 봄에 나는 판전교 벼슬을 하며 송도에 있었다.……한 수의 시를 기록하여 훗날 잊어버릴 경우에 대비한다. 洪武十九年丁卯之春予以判典校在松都……乃錄爲一首以爲他日之備忘云 ·· 108

즉사 卽事 ·· 113

무제 無題 ·· 114

삼가 제공을 그리워하며 奉懷諸公 ·· 115

즉사 卽事 ·· 116

감회가 있어 有感 ·· 118

절구 絶句 ·· 119

8일 새벽에 읊다 初八日曉吟 ·· 120

홍을 풀다 28구 遣興 二十八句 ·· 121
황려의 작은 다락을 생각하며 憶黃驪小樓 ·· 124
일을 기록하다 紀事 ·· 126
즉사 卽事 ·· 127
식후에 食後 ·· 128
우연히 읊다 偶吟 ·· 129
감회가 있어 感懷 ·· 130
즉사 2수 卽事 二首 ·· 131
일을 기록하다 紀事 ·· 132
즉사 卽事 ·· 133
삼외당이 그리워 有懷三畏堂 ·· 134
14일 이른 아침에 지난밤 내린 큰 눈을 읊다 十四日早吟去夜有大雪 ·· 136
즉사 卽事 ·· 137
밤에 읊다 夜吟 ·· 138
17일에 十七日 ·· 139
즉사 2수 卽事 二首 ·· 140

관동 지방을 유람하며 關東錄

신미년 4월 2일 오대산에 유람 가다가 청교 길에서
辛未四月初二日將遊臺山青郊途中 ·· 143
길 가다가 途中 ·· 144

4일에 初四日 ·· 145
시냇가에서 아침을 먹으며 溪邊朝飯 ·· 146
용진에서 龍津 ·· 147
8일에 八日 ·· 148
9일에 九日 ·· 149
억정에 이르러 到億政 ·· 150
주인의 시에 차운하여 급히 쓰다 走筆次主人詩韻 ·· 151
14일에 十四日 ·· 152
안장역에 묵으며 宿安章驛 ·· 153
길 가다가 途中 ·· 154
17일 새벽에 읊다 十七日曉吟 ·· 155
오대산 臺山 ·· 156
19일 새벽에 읊다 2수 十九日曉吟 二首 ·· 157
20일에 월정사를 떠나며 二十日出月精寺 ·· 159
21일 아침에 읊다 二十一日朝吟 ·· 160
연곡역 連谷驛 ·· 161

남쪽으로 상산에 유배되어 南遷常山錄

7월 1일에 七月初一日 ·· 165
2일에 初二日 ·· 166
3일에 初三日 ·· 167

4일에 初四日 ·· 168
6일에 한주의 이, 김 두 판사에게 부치다 初六日寄呈韓州李金兩判事 ·· 169
6월 1일에 나는 송도를 떠나 장단에 이르러 며칠간 부친의 병구완을 하였다.……이제 두어 수의 시를 지어 지난 14일간의 나의 게으름을 나타내려 한다. 余於六月初吉離松都到長湍侍湯藥有日矣……於是哦成數首以志吾懶十四日也 ·· 170
20일 가까이 시를 짓지 않다가 남 선생이 청주에 와 계신단 말을 듣고 二十日近絶不作詩聞南先生行李在淸 ·· 173
8월 20일 밤에 읊다 八月二十日夜吟 ·· 174
9월 4일에 九月初四日 ·· 175
5일에 初五日 ·· 176
9일에 九日 ·· 177
즉사 卽事 ·· 178
6일에 初六日 ·· 179
8일 선원에 이르러 아이가 묵으며 글공부하게 하고 두 선사와 더불어 初八日到禪元留兒讀書與兩禪翁偕 ·· 180
11일에 말을 잃고 十一日失馬 ·· 181
16일에 사문 김군이 계림에서 찾아오다 十六日斯文金君自鷄林來訪 ·· 182
18일에 十八日 ·· 183
22일에 二十二日 ·· 184

부록 附錄

진주에서 在鎭州 ·· 187

무제 2수 無題 二首 ·· 188

섣달그믐 밤에 읊다 守歲吟 ·· 190

5일에 初五日 ·· 192

7일에 상산의 향회에 가서 初七日赴常山鄉會 ·· 193

10일에 初十日 ·· 194

한 좌윤이 찾아오다 2수 韓左尹來訪 二首 ·· 195

동지 冬至 ·· 197

향교의 생도들에게 붓을 구걸하는 시를 지어 부치다 寄呈鄉校諸生乞筆 ·· 198

발 跋 | 이자 ·· 199

발 跋 | 박상 ·· 202

발 跋 | 이태연 ·· 207